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를 나서며 직원들과 환송인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띄우며 걷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문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열린 회담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는 모습.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사전 환담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정상이 환하게 웃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군사분계선 인근 '소매 길'에서 소나무 공동 식수를 하고 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가 건배하고 있다.